

토론문

‘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문

박 재 용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남학연구팀 책임연구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백제 관련 문화유산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유산의 반열에 올랐다. 이에 따라 공주·부여·익산의 국제적인 지명도가 상승하면서 관광객 증가와 고용기회, 결국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워크숍 발표 내용에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듯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저의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충청남도의 백제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계획

충남도에서는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과 ‘역사문화 도시 조성’, ‘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 등 여러 백제 유적 관련 정비·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이 슬럼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생활·재산권의 피해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역발전도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현재 경주와 안동, 수원화성 등의 예를 보더라도 인근 지역이 개발제한으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낙후되고, 상권이 크게 쇠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은 당연하며, 유사사업 통합 실시를 통한 효율적인 진행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도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충청남도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와 부여 시가지 지하에 다수의 유적이 보존돼 있지만 사유지라는 특성상 대규모 발굴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유적 추가 발굴에 대한 한계가 있는 만큼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백제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조건에서의 복원·정비의 실현과 관광활성화(랜드마크)라는 요건을 동시 충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2. 경주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사례

경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을 특화시키기 위한 경주만의 관광자원 개발방식이나 핵심컨텐츠가 있다면 예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광자원 개발에 앞서 신라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세계문화유산 복원(재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후의 과제

유 기 준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교수)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무엇보다 백제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인류 공영의 문화상이 담겨 있다는 국제적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예롭고 등재라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및 지역주민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주인의식과 자긍심의 확대라는 지역주민의 태도는 지역의 문화와 유산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앞으로도 지역이 잘 보존될 것이라는 믿음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백제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정부와 지역주민은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네스코와 같이 기울여야 한다.

이에 등재 이후의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과제 1 : 세계유산 등재 후 주민의 역할 강화사업 구상 필요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태도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지역 주민이 지역에 존재하는 세계유산에 대한 의미와 등재 가치를 인정할 때 자원보존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은 방문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고, 방문객이 긍정적 관광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과제 2 : 세계유산 등재 후 백제유적지구의 다양한 활용방법 모색 필요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것은 문화유산의 적극적 보존의 한 방안이다. 이러한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보존과 활용에서 문화유산의 진정성 문제를 어떻게 접근 하여야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세계유산은 관광, 교육, 상품, 콘텐츠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제유적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유산의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의의’에 대한 토론문

이 도 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노중국 선생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아울러 관련 세미나 때의 노중국 선생의 발언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질의해 보았다.

1. 충청남도는 1994년 9월 무령왕릉만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하였다가 2010년 1월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로 확장하여 잠정목록으로 다시 등재하였다. :

“(서철모 국장) 이와 함께 공주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백제문화유산유네스코 등록을 위해 2월 중으로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로드맵을 작성 12월중 잠정목록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고, ‘정립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주민공청회, 심포지엄, 백제 불교양식 고증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금강뉴스> 2007.01.27.)

“서만철(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을 만나 문화재보존과학에 관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고구려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벽화보존의 문제적인 차원에서 거론될 것이 분명하고 또 백제문화의 중심이랄 수 있는 공주 무령왕릉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우리 학회 회원들이 협조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금강뉴스> 2008.05.02.)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무령왕릉이나 능산리 왕릉원 등이 당초부터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와 성격을 지닌 문화재로써 당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인지 묻고 싶다.

2. 산성 안에 왕궁을 만든 것은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평지성과 산성으로 이루어진 한성과는 다른 모습이다. :

고구려의 첫 왕성으로 일컬어지는 환인의 오녀산성은 해발 821m 고지에 소재하

였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누구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묻고 싶다. 고구려와 훨씬 더 격렬하게 대결하던 한성기에는 왜 산성 안에 왕궁을 조성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3. (공산성) 고려시대에도 주요 관방으로 사용되었다. :

고려시대 유구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여 공산성이 ‘주요 관방으로 사용된’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요 관방으로 사용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4. 무령왕릉은 묘지석에 의해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이라는 사실, 축조 연대가 526년이라는 사실, 발굴을 통해 내부 구조가 볼트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지식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오.

5. 그리고 전혀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장품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고대동아시아 제왕 무덤 가운데 유일한 사례이다. :

신라 왕릉이 분명한 천마총이나 황남대총, 그리고 서봉총도 처녀분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전혀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장품을 고스란히 알 수 있는” 무덤에 해당되고 있지 않은가? 이 경우는 피장자를 알 수 있는 왕릉이라는 식으로 고쳐서 표기했어야 마땅하다.

6. 동쪽은 나성에 의해 방어되는 입지였다. :

동쪽만 나성이라면 차단성이지 도시 전체를 에워싼 성곽을 가리키는 나성이라고 호칭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서술은 발표자가 “**능산리고분군: 사비도읍기에 오면 도성을 둘러싸는 나성이 만들어지면서**”라고 한 것과 어긋난다. 이와 더불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를 주목해 본다. 왜냐하면 반 천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지형 변화를 염두에 둘 때, 구체적으로 묘사한 지형 기록 자체는 몹시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반월성(半月城): 석축(石築)으로 성의(城) 둘레가 1만 3천 6척이니, 곧 옛 백제의 도성(都城)이다. 부소산(扶蘇山)을 껴안은 두 머리가 백마강에 이르렀는데, 형태가 반월(半月)과 같은 까닭에 이름이 생겼다. 현치(縣治)가 그 안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소산 좌우로 성벽이 이어져야만 ‘껴안은[抱]’이라는 서술이 맞게 된다. 그리고 ‘두 머리가 백마강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소산 좌우로 축조된 동·서나성(東·西羅城)의 최종 구간을 가리킨다. 비록 서나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글이지만 “...부소산성의 성벽과 연결되는 서나성의 일부 흔적은 확인되었다. 부소산 서록사지(西麓寺址)와 인접한 북편 능선이 그것이다. 이 능선은 백마강에 바로 접한 능선과 사이에 깊고 좁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 계곡의 남단부 즉, 서록사지 북쪽 능선의 하단부에서는 성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사면에 박힌 채 노출된 곳이 있어 나성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했다. 서나성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요컨대 530여년 전에 목격된 “부소산을 껴안은” 한 축으로서 서나성의 뿌리가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서나성의 본체와 연결되는 성벽이 필시 존재

했다고 보아야 사리에 맞다. 따라서 노 선생이 주장하는 “사비나성은 서남쪽은 백마강을 자연적인 해자로 활용하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7. 판축기법으로 축조된 부소산성 안에서는 병영지, 창고 시설 등이 발굴되었다.:

어떤 창고 시설인가?

8. 중하층의 현실 천정은 볼트형인데 무령왕릉의 구조를 이은 것이다. 동하층은 현실의 네 벽과 천정을 각각 한 매의 판석으로 만든 구조인데 네 벽에는 사신도를, 천정에는 연화문도를 그렸다. :

능산리 2호분, 능산리 1호분이라는 공식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하층이니 동하층이니 하는 일제 강점기 때 日人들이 부여한 호칭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9. 사비나성은 서남쪽은 백마강을 자연적인 해자로 활용하고 :

강과 접하고 있다고 해서 축조하지 않은 나성도 있던가? 고구려 장안성의 남쪽 성벽은 대동강에 잇대어 있지 않은가?

10. 무왕(600-641)은 왕건 강화와 남방 지역에 대한 확고한 장악을 위해 익산에 부도를 건설하였다. 왕궁리 유적은 높게 조성된 대지 위에 위치해 있는데 발굴을 통해 왕궁임이 증명되었다. :

본인은 익산을 미완의 왕도라고 했는데, 이제 화장실 유구까지 드러난 익산 왕궁은 미완이 아니라 실제 왕이 거처했던 왕궁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앞으로 거처할 예정인 왕궁이라는 말인가? 2015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황에서의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11. 이 궁성은 후일 5층 석탑을 가진 사찰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

언제 사찰로 전환되었는가?

12. 이러한 평지성+산성의 왕성구조는 한성도읍기의 전통을 이은 특징을 갖는다. :

그러면 왜 웅진기에는 이러한 전통이 단절되었다가 국제적인 안목과 계획적인 기획에 의한 도성이 조성되는 사비기에 와서 한성기의 전통을 잇는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웅진기에 왕궁이 공산성 안에 소재했다는 게 중지를 모은 통설인가? 몽촌토성을 설령 산성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풍납동토성과 몽촌토성은 독립된 2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관북리의 경우는 宮牆도 확인되지 않지 않았던가? 관북리 유적은 평지성은 아니지 않은가? 관북리의 경우는 배후에 부소산과 곧바로 연결되지만 풍납동토성과 몽촌토성은 근거리로 소재하기는 했지만, 관북리의 경우와는 달리 상호 연결된 구조는 아니다. 그러므로 양자를 동일한 형식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宮牆과 '평지성'은 성격이 다른 것이다. 가령 덕수궁이나 경복궁과 같

은 宮牆으로 둘러싸인 시설을 '평지성'으로 일컫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담장과 城은 성격이 다른 것이다. 뭔가 혼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13. 538년에 만들어진 부여나성은 현재 남아있는 고대동아시아 나성 가운데 당시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

‘완벽’이라는 용어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닐 것이다. “비교적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14. 사찰 건축에서 보여주는 백제의 우수한 문화는 :

문화에 높낮이가 없다는 문화 상대주의는 상식이지 않은가?

15. 백제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석탑은 신라에 전해졌고 :

이러한 서술을 하려면 고구려의 탑파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한다. 즉 고구려에는 석탑이 없었다는 전제 말이다.

16. 신라는 불교 공인 후 최초로 사찰을 건립하면서 백제의 흥륜사를 본받아 사찰 이름을 흥륜사라 하고 여기에 미륵불을 주불로 모셨다. :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주기 바란다.

17.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여 유적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발표자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18. "발표자들에게 숙제를 준다면서 익산에서 출토된 首府 銘 기와와 5部銘 인각와가 과연 백제 때 유물인지, 아니면 백제 이후의 유물인지를 검증해 달라('백제 말기 익산 천도의 제문제' 익산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 국제학술회의, 2011.11.10)" :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19. "자기는 대구에 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백제를 평가할 수 있는데 '대백제'라고 하니까 뭐가 대백제냐며 (대구 사람들이) 비웃는다 “('백제 말기 익산 천도의 제 문제' 익산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 국제학술회의, 2011.11.10):

2008년 12월 22일 공주대학교 세미나 종합토론 때 노중국 선생은 "대백전의 '대'를 빼라고 했고"한 바 있다. 본인의 생각과 대구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대백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주면 좋겠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토론문

이 동 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 책임연구원)

지난 6월 4일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이 들려왔다.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감안해 볼 때 제대로 조명 받거나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는 이제 지방정부와 국가를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귀중한 유산이 되었으며,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 및 완전성을 보존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책무가 우리 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산구역과 주변 구역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신청 시 크게 신청유산(Nominated Property)과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정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유산구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산구역을 넘어선 보다 넓은 범위에 대한 설정(Wider Setting)도 권장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구성하는 개별 유산지역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구역을 신청유산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유산의 보호를 위해 완충구역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정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유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세계유산 지정구역 밖으로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층수와 용도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압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구역에 대한 면적인 공간의 보존관리는 여러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세계유산의 관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세계유산적 측면에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보전 방법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유산의 복원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복원을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유산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설계도면, 사진 등)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기본적으로 매장문화재로 구성된 유적이다. 따라서 지하의 유구에 대한 보존(Preservation)이 매우 중요하며, 원 유구가 있는 유적지에 추정에 의한 복원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복원으로 인해 원 유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정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하의 매장유구들이 각 유산지구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들로서 세계유산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지상에 새롭게 복원된 구조물들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유적의 보전(Conservation)을 위해 발굴조사 이후 복토하여 평면적 모식을 통해 유적의 형태를 가늠케 하는 정비수법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의 매장문화재 유적 정비의 방향과 수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적지의 보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세계유산적 측면에서 유산주변지역의 역사문화경관 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단순한 점적단위의 문화재 차원에서 벗어나 단위위산을 포함하는 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점과 공주와 부여의 경우에는 문화재가 도심에 입지해 있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역사지구는 곧 역사도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역사도시의 보존과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11월 제17차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발레타(Valletta) 원칙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역사도시에 건립되는 현대적 건축물은 유적의 가치와 그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도시 경관을 풍요롭게 해주며, 도시의 연속성을 살아있게 한다.
- 역사도시의 건축물은 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공간적·시각적·무형적·기능적 측면에서 적절히 수용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 현대 건축물은 역사지구의 공간구성과 부합되어야 하고 그것의 전통적 형태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수용하는 창조성은 허용되어야 한다.

발레타 원칙을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적용해 본다면, 세계유산구역과 인접한 도심지 건축경관은 백제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공간적·시각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역사적 맥락을 수용한 창조적인 건축물 또한 허용하여 백제왕도로서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게 경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발표자분들의 원고를 읽고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중국**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매장문화재 위주의 유적지로서 보존을 전제로 정비되어 있어 형태적 가시성 확보에 어려움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적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유적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한다.

또한 **김규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와 특성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한 맥락을 보이고 있는 유적지이나, 최근 세계유산 자체에 대해 여러 복원계획 등이 수립되고 일부에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고려되어야 될 문제(세계유산센터와의 협의 등)가 있다면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팀장님께 질문 드리면, 발표문과 같이 공주·부여에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고,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 후속조치 등이 수립되고 있는데, 각 사업의 성격이 상호 보완되는 점도 있으나, 중첩되는 내용 또한 발생될 수 있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백제왕도의 유적 보존과 역사문화경관의 보전적 측면에서 동일한 원칙하에 각 사업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할 분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